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

저자 (Authors)	양명수
출처 (Source)	기독교사상 42(9) , 1998.9, 24-32(9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한기독교서회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l=NODE00135710
APA Style	양명수 (1998).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 기독교사상, 42(9), 24-32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1/08/11 10:5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

양명수

I. 타락한 종교인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한 민족의 멸망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 쪽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에스겔에게 전달된 말씀에 따르면 멸망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고 그 분노는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분노다. 그 배신이란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와 우상숭배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숭배 한 가운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분노의 초점은 종교인들의 엉뚱한 짓들과 썩은 행태에 맞추어져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란 워낙 권력을 찾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백성들이란 1차 욕구 충족에 민감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종교인들마저 부패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믿고 일하신단 말인가? 종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이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하나님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희망이지만, 사람도 하나님의 희망이다. 사람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

로 역사(役事)하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버거웠기 때문일까? 민족의 멸망을 막을 사람, 하나님이 볼 때 믿음직한 사람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다. 예언자들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꾸며대고, 속덕속덕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걸치레에 치우쳐 오히려 이 땅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준다. 겉으로만 거룩하고 속으로는 속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모독당했다(또는 더럽혀졌다)' (겔 22:26).

하나님을 높일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다. 전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교인이 적어서가 아니다. 타락한 시대일수록 종교 행위는 더욱 요란스럽다.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람들이 다른 편에서는 거짓 말을 밥먹듯이 한다.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안다. 지옥만 얘기하면 되는 줄 안다. 종교로 위장한 권력의 지에 대해 추호도 돌이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누가 보아도 한심한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되풀이하는 데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타락한 종교인이 믿는 구석이란 무엇일까? 자기 편, 곧 무슨 정치 집단일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근본되는 것은 그러한 행태를 뒷받침하는 무슨 생각과 논리다. 나름대로 무슨 신학을 가지고 있다. 무슨 신학일까? 교회주의다. 교회를 잘 되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가르친다. 어떻게든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면 그만큼 구원시킨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상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주의는 복음의 허울을 쓴 권력의지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다. 루터는 당시 카톨릭의 교회주의에 맞서 '오직 복음으로만' 을 외쳤다. 그래서 복음주의란 곧 개신교를 가리키는 말처럼

교회주의는 복음의 허울을 쓴 권력의지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다. 루터는 당시 카톨릭의 교회주의에 맞서 '오직 복음으로만' 을 외쳤다. 적어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복음이 성장하는 것은 무관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복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맘에 들어야 교회가 산다.

되었다. 개신교의 정체는 교회주의에 대한 거부에서 생긴다는 얘기다. 적어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복음이 성장하는 것은 무관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복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맘에 들어야 교회가 산다.

교회 정치는 무엇인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정치가 없을 수 없지만 정치는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롭게 하는 것이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 도무지 상식이 어긋나는 것을 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성서의 은혜 논리는 자기가 거저 받았으니 남에게 거저 준다는 것인데, 자기 쪽으로 모든 걸 끌어들이면서 은혜롭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적어도 상식과 이성에 맞아야 한다. 원래 성서의 은혜 논리에 따라 세상 정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러므로 계시가 아닌 이성에 따라 합리롭게 해야 한다. 교회 정치도 세상 정치다. 정치는 모두 세상 정치다. 그러므로 세상 규범이 기본이다.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서 계시와 은혜를 끌어들이면 부패를 더할 뿐이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하려면 교회 안에서 하지 말고 밖에 나가 하면 좋겠다.

II. 성장주의는 물질주의다

큰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성장이란 생명의 본질이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요 성장이 왕성한 것은 그만큼 생명이 충만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성장은 기뻐해야 할 일이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생명이 충만한 징조가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은 언어를 얼마나 타락시키는가! 사실 사람의 타락은 언어의 타락이다. 좋은 말, 생명의 언어를 왜곡해서 쓴다. 그렇게 해서 어둠과 죽음을 위장하고 정당화한다. '큰다'는 말이나 '성장'이라는 말이 바로 그렇다.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커지고 성장한다는 것이, 오늘날처럼 덩치가 커지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을까?

적어도 초대 교회는 그런 데서 출발하지 않았다. 복음으로 사람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는 일에 힘썼다. 관심은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과 사람에 있었다. 교

회는 복음과 사람에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그것이 철저히 할 때는 진리와 덩치가 일치할 수 있다. 초대 교회 같은 경우 말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과 순교를 뜻하고 일상의 축복과는 별개로 마음의 평안과 축복을 찾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며 평생 살아갔던 이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진리가 이 세상에서 커지는 것이다. 그때 교회의 성장이란, 로마 황제라고 하는 막강하고 화려한 세상 권세에 대항해서 작지만 진리에 찬 이들의 자유를 보인 것이다. 작지만 진리에 찬 이들, 작지만 큰 자다. 교회의 성장은 먼저 거기에 있다. 작음과 큼이 같이 있어 변증법을 이루어야 한다. 커도 보잘 것 없는 교회일수도 있고 작아도 큰 교회일 수 있다. 기독교 역사에서 뻗히 보이지 않는가? 그러므로 성장은 밖에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다. 사람 수나 덩

커도 보잘 것 없는 교회일 수도 있고 작아도 큰 교회일 수 있다. 기독교 역사에서 뻗히 보이지 않는가? 그러므로 성장은 밖에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다. 사람 수나 덩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리의 문제다. 진리는 생명이요 생명은 아름다운 성장을 가져오므로 진리아말로 성장을 가져온다.

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리의 문제다. 진리는 생명이요 생명은 아름다운 성장을 가져오므로 진리아말로 성장을 가져온다. 그것은 무슨 전략과 작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와 진실로 받는 은혜다. 속이 크는데 덩치까지 커가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덩치는 하나님의 일로 봐두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봐둘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세상에는 항상 진리와 덩치의 싸움이 있어 왔고 타락한 시대는 항상 덩치와 숫자로 진리를 축적하려고 했다. 양이 많아지면 질도 높아진다고 할 것인가? 그것은 적어도 사람에게 쓸 말이 아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듯이 그런 논리는 물질주의 논리다.

왜 초기 교부 때부터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얘기가 나왔을까? 어거스틴은 왜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과 똑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을까? 교리의 역사를 볼 때, 왜 건물이나 제도를 교회로 보지 않고 사도신경이나 종교개혁자들처럼 성도의 교제나 모임을 교회로 보는 교회관이 생겼을까? 교회가 늘 복음과 일치하지는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교회와 진리 사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 제도와 제도를 낳은 정신 사

이에 긴장을 주려는 것이었다. 민중은 흔히 그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린다. 모든 사람이 민중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제도에서 구원을 구한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지만 보려고 한다. 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은 육에 의지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보임직한 것은 먹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창 3:6). 먹어서 자기 속유로 만들고 배를 채우고 움켜쥐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은 육에 의존하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는 보이는 세계를 하찮게 보는 종교는 아니다. 정신주의가 아니다. 물질이나 육을 악으로 보는 종교도 아니다.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물질이나 육도 모두 은총이다. 그러나 축복이요 은총이다. “하나님의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복을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물질은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에게 더하여 주는 축복이다. 또는 말을 들으라고 태어날 때부터 더하여 주는 축복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더하여 받은 것이다. 살면서 줄곧 무엇을 더하여 받으며 살고 있다. 성서에서 볼 때 물질은 내가 일해서 번 것이라기보다는 더하여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을 구하여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자본주의는 여기에 기초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이다. 맘을 바로먹는 것이다. 맘은 몸이어서 힘을 낳는다. 적어도 성경이 명령하는 삶의 방식은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숫자에 의지하는 성장론은 육의 권세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물질주의다. 하나님의 은혜를 객관화하는 것이다. 은혜를 객관화하는 것은 눈에 보여 좋지만 결국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기독교가 다른 고등 종교와 달리 물질이나 육을 나쁘게 보지 않는 틈으로 들어온 죄의 권세다. 물질주의는 정신주의보다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 힌두교나 불교 같은 종교는 상당히 정신주의 요 이원론에 가깝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원론 종교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물질주의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세상도 자본주의로 온통 물질주의인데 교회마저 양과 숫자 위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있으면 어디서 힘을 얻을 것인가? 거룩을 내세우는 교회일수록 가장 세속적인 자본주의의 성장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고 경영을 하려고 한다. 조직이 움직이고 실적을 비교한다. 자본주의에

서 능력을 사모하듯 목회자도 진실보다는 능력을 구한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성장을 사랑한다.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성장이 목적이다. 사람은 성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역설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 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데 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복음이다. 십자가 사건만큼 사람을 귀하게 평가한 사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성서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이다. 그러므로 그 무엇이 수단이 될 수 없다. 교회보다도 사람이 중하다. 적어도 성서의 하나님에게는 그렇다. 사람보다 교회성장을 사랑하는 것은 힘을 사랑하는 것이요 곧 권력 의지다. 에덴 동산에서 말쑥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의 죄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허울을 쓰고서 말이다. 그런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부패를 정당화한다.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세상에 끌려간다. 아니, 세상의 부패를 앞장서서 이끄는 측면이 있다. 타락한 종교는 세상의 부패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부패한 인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부패를 앞에서 이끈다. 성장은 사랑의 열매일 뿐이지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며 사랑하면 성장 하리라. 진리는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성장하지 않아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다만 하나님의 길을 갈 뿐이고,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 지지시 않을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부분을 놓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모든 걸 자기 손에 쥐고, 자기 손으로 거두어 자기의 영광을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만들려는 것이다.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다.

숫자에 의지하는 성장론은 육의 권세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물질주의다. 하나님의 은혜를 객관화하는 것이다. 은혜를 객관화하는 것은 눈에 보여 좋지만 결국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세상도 자본주의로 온통 물질주의인데 교회마저 양과 숫자 위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있으면 어디서 힘을 얻을 것인가?

III. 십자가와 새로운 교회

성장주의는 물질주의고 물질주의는 권력의지다. 중세에서 보았듯이 권력의지에 찬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전능의 하나님을 강조한다. 사람을 키우지 않고 사람을 압도해서 노예의지를 키운다. 죄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비는 어디로 갔는가? 초대 교회 때부터 기독교인의 화두는 하나님의 수난이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하시는 수난. 힘 있는 사람들과 뛰어난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수난에 대해 고개를 저었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 고백에서 시작했다. 수난당할 수 없는 분이 수난당하셨다. 삼위일체는 수난당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독교론에서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사람이라는 교리도 수난당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가능성(potentia) 곧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전능하시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이 세상과 그 속에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실 수 있는 대로 다 하시면 세상은 끝장이다. 언젠가 그럴 때가 오리다. 그러나 아직은 세상에 사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로 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기로 하셨다. 아직은 어린애를 보내시고 새 생명을 축복하기 바라신다. 그래서 무능해 보일지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죽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 전능이 아니라 무능이다. 진리의 무능함. 그러나 진리에도 힘이 있다. 그 무능함에 힘이 있다. 그 무능은 나와 세상을 살리는 힘이다. 그러므로 무능이 아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일단 죽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모험이고 결단이고 그래서 믿음이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의 힘은 양과 크기에서 나오는 권세와 다르다.

남들이 모두 바라는 것을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이 복음의 축복인가? 바라는 게 좀 다를 수는 없을까? 복음의 축복이 재물과 지위의 문제라면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한다. 원시 종교도 모두 그걸 축복한다. 원시 종교는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가 없고 성서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효과가 있는가? 복음의 능력은 그런 데 있는가? 기독교인들만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성서의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그런 것보다 훨씬 넉넉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힘이기보다는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물질과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늘 감사해야 하지만 그 감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재물과 지위를 정당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는 데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감사는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일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우리 뒤나 쫓아다니면서 우리 행위를 정당화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용당할 분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은 뒤에 두고 민중의 종교 본능을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때 항상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사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족을 나타내는 구절은 거의 없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다지만 그 관계는 거의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부패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고발하고 경고했다. 그 경고를 들을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새로운 교회의 영성이 쌓여 갔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교가 출현했다. 사실 그리스도교의 출현 자체가 새로운 교회의 출현이었다. 부패하고 굳어버린 옛 신앙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면서 생긴 것이 그리스도교다.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그것을 말해준다. 하나님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꾸었기 때문에, 처음 세워져서 새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영성으로 무장해서 새 교회다. 중세 교회가 부패하고 굳어졌을 때도 새 교회가 출현했다. 그것이 개신교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바꿀 수밖에 없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살리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해

남들이 모두 바라는
것을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이 복음의 축복인가?
복음의 축복이 재물과
지위의 문제라면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한다. 원시
종교도 모두 그걸 축복한다.
기독교인들만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
이다. 성서의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그런 것보다 훨씬
넉넉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힘이기보다는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서 교회는 살아남았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역사는 아직도 계속 된다. 종교 개혁자들은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써 몸인 교회를 살린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한다.

성서에 따르면 믿음의 백성은 축복의 근원이다. 기독교인이 잘하면 축복이 주변에 까지 미친다. 가정으로 보나 직장으로 보나 민족으로 보나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다. 그러나 축복의 근원인 만큼 멸망의 책임도 묻는 것이 성서의 관점이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교회는 손에 짊어졌던 것을 놓고, 십자가의 신비 앞에서 허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서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내가 너희 가운데서 더럽혀졌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겠다. 그 말은 가장 무서운 저주이기 때문이다. **24**

양명수 | 배재대 신학과 교수(조직신학과 율리). 서울대 법대, 감신대 대학원, 스트라스부르크대 박사(Doc. en. Théol.). 저서로는 「기독교 사회정의론」(한국신학연구소, 1997), 「오늘의 어거스틴」(공저, 대한기독교서회, 1997)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인간 현상」(한길사 그레이트북스, 1997), 「악의 상징」(문학과 지성사, 1994), 「하나님과 유투피아」(성광문화사, 1991) 등이 있다.